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헛바퀴'...소득없이 협상 중단

광주시, 유권해석 거쳐 논의 재개 결정...지역사회 '관광인프라 구축 시급' 서진건설 '시 과도한 민간투자법 확대 해석 걸림돌...사업 참여 의지 확고'

광주시의 대표적 장기 미해결 현안 사업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됐다 소송 끝에 권한을 회복한 서진건설과 광주시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선 미래 관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양측이 원만한 협상을 통해 사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광주시와 서진건설은 최근 두 달여 간 벌여온 협상을 16일 종료했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담보하는 협약 이행 보증금과 관련한 양측 입장차만 확인하고 협상은 소득 없이 끝났다. 광주시는 예상 총사업비 4800억원의 10%인

480억원을 요구했지만, 서진건설은 기반사업비 200억원을 기준으로 삼아 20억원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진은 당초 광주시가 우선협상 대상자에게 전체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480억원의 협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한 것 자체가 스스로 공모 지침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공공기관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수천억원대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형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일시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전형적 도시개발 사업인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등은 직접 공사비를 모두 제외하고도, 1% 수준인

수십억원 규모의 사업이행금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광주시도 2019년 3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공모지침에 '민간사업자는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총 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의 10%에 달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등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시는 총 사업비에 대해서도 사회기반시설 관련 민간투자법 제3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총사업비의 산정)을 준용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광주시에서 공모지침으로 제시한 민간투자법에서는 총 사업비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영업준비금 등(8종)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사비는 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

비, 경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을 합친 금액 등으로 한정했다.

광주시는 같은 해 7월 이 같은 공고 기준에 따라 서진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협상 과정에서 총사업비 범위에 사회기반시설사업은 물론 특급호텔 등 모든 건축 공사비를 포함했다. 광주시는 당시 전체 사업비 5396억원에서 토지매입비 570억원을 뺀 4826억원의 10%인 482억6000만원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은 이번에도 이 같은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산정 기준 등 공모 지침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부 부처로부터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협상 재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서진건설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고 광주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유권해석이 끝나는 대로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

서진건설측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사업 참여 의지는 확고하다"면서도 "광주시의 주장(보증금 480억원)은 대형사업을 장기간 진행해야 하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련법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시의 전형적인 입장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9년 7월 공모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서진건설을 선정했다. 서진건설은 협상 난항 끝에 광주시로부터 우선협상 대상 지위를 박탈당했다가 소송을 거쳐 회복했다. 이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 41만7500㎡에 휴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여러 차례 협약과 파기가 이어지는 동안 골프장만 들어섰을 뿐 진척이 없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착공식이 17일 오후 광주 북구 충효동 호수생태원 인근 부지에서 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문인 북구청장 등 참석자들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착공을 기념해 시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충효동 생태문화마을 공사 착공

상가단지·한옥 숙소 등 조성

국립공원 무등산 원호사 지구 이전 대상지인 광주 북구 충효동 생태문화마을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광주시는 17일 광주호수생태원 인근 사업 부지에서 생태문화마을 착공식을 개최했다.

사업은 충효동 일대 14만3000㎡ 부지에 원호사 지구를 이주시키고 무등산-광주호 생태문화원·가사문화원과 연계한 생태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비 398억원(국비 138억원·시비 260억원)을 투입해 원호사 상가 이주단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한옥 숙소, 경관 단지 등을 조성한다. 내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원호사 주변 상가 52곳·주택 2곳에 거주하는 상인·주민들은 생태문화마을이 완공하고 이주할 예정이다.

이주민들은 마을에 조성하는 상가·주택의 분양권을 받는다. 1980년대부터 원호사 주변에 자리잡은 상가·주택 등 집단 시설이 무등산 경관과 환경을 크게 훼손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2013년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이후 이전 사업을 추진했지만, 난개발, 상업시설 확보 등 논란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시는 주변 자연 생태, 관광지구와 연계해 연간 6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생태문화마을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해 국립공원 내 상가를 외곽으로 옮기는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광주에서만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광주의 대표 마을로 거듭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조선·해양플랜트 강소기업 육성 전남도, 25일까지 희망기업 모집

전남도는 조선·해양플랜트 기업 기술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지원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중소 조선·해양플랜트기업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69개사를 지원했다. 올해는 15개사를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본사나 지사 등 사업장이 전남에 소재한 제조업체 중 주업종이 조선·해양플랜트인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 설계·해석 및 디자인, 인종 취득 등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을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 기반산업과나 전남테크노파크 조선산업지원센터로 문의하고 이메일·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요건심사와 현장조사, 발표평가 등 3단계 심층 평가를 거쳐 4월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행정통합 논의 진척돼도 도청 이전 없을 것"

김영록 지사, 무안서 도민과의 대화 광주군공항 이전 범정부대책 마련을

김영록 전남지사는 17일 지난해 논의가 시작된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현 도청소재지(무안 남악)를 이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를 2023년까지 조기 개통하고,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연 50만명을 유치해 무안을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무안군 송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무안군)에서 "일부에서는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도청 소재지가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일 뿐"이라며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여건이 성숙한 뒤에야 논의가 진행될 것이며, 초점은 초광역 협력사업 등 경제공동체 구축에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해 시·도지사 협약(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관련 사항이 명기된 만큼, 무안군민들께서는 도청 소재지 이전

과 관련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무안군에서 열망하는 시(市) 승격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목포대학교가 소재한 무안에 의과대학을 유치하자는 주민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의정협의체의 의과대 신설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면 도민의 30년 염원인 의과대가 전남에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주군공항 이전사업 중단 요구에는 "지금은 충분한 지역발전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국방부와 광주시)제시안은 무안군민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산 무안군수, 김대현 무안군의회의장, 무안을 지역구로 둔 나광국·이혜자 도의원, 주민대표, 기관·단체장, 일반 군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아래 진행됐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주민 150명이 영상으로 대화에 참여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17일 무안군 송달문화예술회관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설치학과

학부

- 신학과
- 한국어교육학과
- 유아교육과
-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대학원

-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 신학과 (M.Div.) / 성경연구학과 (Th.M.)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신학과 (Ph.D.) / 목회학과 (D.Min.) / 유아교육학과 / 사회복지학과 / 상담심리치료학과 / 코칭심리학과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 / 휴먼서비스교육학과
- 석사통합과정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
- 석사과정 | 신학과 (Th.M.) / 유아교육학과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과정 | 상담심리치료학과 / 청소년상담지도학과 / 코칭심리학과 / 재활심리치료학과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 사회복지학과 / 평생교육학과
-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 한국어교육학과 / 휴먼서비스교육학과
- 음악대학원 석사과정 |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부설교육기관 T.062)605-1112

- 평생교육원
- 여자신학원
- 보육교사교육원
- 생활한방교육원
- 정서코칭상담교육원
-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 사모상담전문지도자과정
- 한국어교육원 (어학연수과정)
- GMS광신대학교 선교연구원(SMTC)
- 콘서트바트리

인학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